

아이들과 진짜 놀이를 함께 해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과 하루에 얼마나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시나요?

매일 30분이라도 아이들과 몸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함께 해주세요.

풍선치기, 이불 김밥말이, 얼굴에 붙인 테이프 먼저 떼기, 숨바꼭질 등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실천이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시간만이라도

부모님이 함께 몸을 움직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놀이를 해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상처받지 않게 훈육해요

“싫어” “아니야” “안 해” 가 시작된 아이들. 부모가 짜증난다고 무조건 감정적으로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올바르게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니다.

1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훈내기 전에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 같아 보여도 아이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 후에 훈내는 것이 아이의 마음을 억울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2 핵심 내용 위주로 이야기해주세요

아이의 연령별, 발달 수준에 따라 어휘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육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준 뒤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훈육하기 전에 주의(경고)를 주세요

훈나는 일과 관련해서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에 한 번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4 잘못된 것만 이야기해주세요

많은 부모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훈나는 순간의 잘못만이 아닌 과거의 일까지 끌어들여 혼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육이 아니라 잔소리가 되므로,

짧고 간결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